S&P, GS칼텍스 신용등급 BBB+ 상향 조정

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(S&P)는 6월20일 GS칼텍스에 대한 장기신용등급을 BBB에서 BBB+로 1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.

등급 전망은 안정적(Stable)으로 평가했다.

S&P는 보고서에서 “GS칼텍스는 정유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것에서 보듯 영업성도가 뛰어나고 영업 효율성도 우수하다는 점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”이라고 밝혔다.

그러나 정유산업이 원래 주기적인 산업이고 환율로 인한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GS칼텍스가 지닌 장점이 다소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<화학저널 2005/06/22>